

산업단지의 고용 추이와 일자리 창출방안

홍진기(산업연구원)

산업단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의 공간적 집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계획적 입지 제공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1,220개이고 입주업체 수는 10만 2,930개, 고용은 222만 2,590명이며 2017년 기준으로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달한다.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가 전체 산업단지 고용에서 가장 큰 비중(49%)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24.1%), 기계(22.8%), 운송장비(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전기.전자와 비제조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했으나 비금속, 섬유.의복, 목재.종이 등의 고용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고용의 탈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내에서는 경공업과 생활 관련 산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중공업과 가공조립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산업단지 내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전기.전자, 기계, 운송장비 등 가공조립산업의 고용 비중은 60%를 상회하고 있고 경공업의 고용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고용 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관 다각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 내 업종구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다.

산업단지의 고용창출 요인을 분석한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산액 증가, 가동률 제고, 창업 촉진, 입주기업 증가, 정주여건 개선 등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에서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통해 생산과 가동률을 제고하고 기업 유치와 창업 등을 통해 단지 활력을 제고하면서 종업원을 위한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섯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첨단 신산업 및 서비스업을 위한 입지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첨단 신산업과 서비스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입지 특성을 달리하므로 이들 산업의 입지요인을 감안하여 도심 내 빌딩 형태의 오피스파크 조성, 다양한 임대단지의 공급 확대, 도시 인근 혹은 대학 내 소규모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다양한 입지공급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라 기존 제품의 판로를 상실해 가고 있는 영세한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의 접목을 통한 공정혁신을 유도하고 나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업종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경영 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은 독자적으로 공정혁신 및 업종전환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를 산업단지 내에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단지 내에서의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의 창업은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창업에 비해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연구개발에서 제품 판매까지 가치사슬이 복잡하여 상대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제조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혁신생태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의 묘상(seedbed)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기존 시설들을 활용한 제조창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산업단지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대기업 의존적인 기업 간 거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상향식 공동 비즈니스 발굴 노력과 함께 발굴된 비즈니스 모델의 실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개별 기업 중심으로 시행되던 각종 지원사업을 공동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에 필요한 지원으로 전환한다면 정부재정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고급기술인력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정주공간의 제공과 근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화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간 거래 효율화 및 단지 관리의 지능화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한 미래형 산업단지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